



사랑의 쌀 공개 모금행사가 18일 한인타운 내 아씨마켓과 한국마켓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미어머니봉사회 티나 리 회장장과 남가주교협 홍순현 이사장, 남가주교협 박효우 회장 등 임원들이 참여했다.

사랑의 쌀 나눔에 7만5천불 답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개인과 단체들의 성원에 힘입어 19일 오후 2시에 남가주교협 사무실에서 또 한차례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달식에서 남가주한인식품상연합회 마이크 김 회장은 "대부분이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 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미한인노인회의 김용훈 회장은 "노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렵게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까지 각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모아진 입금액 총액은 5만6023달러 53센트, 약정액은 1만9150달러 등 총누계 총액은 7만5173불53센트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1일 LA 인근 각지에서 쌀이 배부됐고 2차 배부는 28일 LA 한인회, 나성동산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풍성한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등에서 이뤄진다. 토마스 맹 기자

필드 이후 복음주의권은 능력 있으면서도 연예인 같은 리더들이 주도해 왔다"고 말한 뒤, 이런 리더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경우, 마치 복음주의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피 교수는 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리더들이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가꾸기보다 자신들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에 더 내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간호사였다. 간호사는 무려 82%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약사(70%), 초등학교 교사(70%)에 이어 의사(69%), 군인(69%), 경찰(54%)이 차지했다. 성직자는 그 다음으로 7위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데이케어 교사(46%), 판사(46%), 양로원 운영자(32%), 자동차 정비원(29%), 은행원(27%) 등이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20% 밖에 되지 않았으며, 신문 기자도 21%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8%로 자동차 판매원(9%)보다도 낮았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이뤄졌다. 김준형 기자

성직자 신뢰도 사상 최악 간호사, 교사, 경찰보다 낮아

성직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표된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런 조사가 시작된 1977년 이래 최하다. 2013년 성직자를 "매우 신뢰" 혹은 "신뢰"한다는 사람은 47%를 기록했으며 "매우 불신" 혹은 "불신"한다는 사람은 11%를 기록했다. 신뢰 47%는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불신 11%는 가장 높은 수치다. 즉, 성직자에 대한 신뢰는 줄고 불신은 늘었다는 이야기다. 갤럽 측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 "그 직업과 관련된 각종 스캔들의 영향이 경우가 대부분"이라 밝히며 2000년대 초 전 미국을 강타한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메시 아대학교의 존 피 교수는 복음주의권에서도 최근 수년간 표절 내지는 불륜 등 목회자 스캔들을 겪어 왔으며 이런 스캔들이 목회자를 향한 대중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평가했다. 피 교수는 "대부흥 시기의 조지 윗

김준형 기자

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에 백지영 목사 유임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16일 한우리장로교회(강지원 목사)에서 제 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백지영 목사를 유임하고 수석부회장에 강지원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지원 목사는 "남가주 교계와 미국을 위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쓰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총회에서는 회장에 백지영 목사가 만장일치로 유임이 결정됐다. 백 목사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여성목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목사회 이취임식은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16일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회장에 유임된 백지영 목사, 네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선출된 강지원 목사.

이민목회 은퇴, 이젠 북한 선교사로 헌신

얼마만에 최대교회를 이루고 23년 동안 수많은 돌탑(돌아온 탕자)을 맞이한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KCC 대표간사). 그의 목회는 위로와 위로의 연속이었다. 4.29 폭동에서 잿더미가 된 이들, 아들 딸의 문제로 간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했던 그는 이제 목회를 마치고 선교사로서의 제 2의 삶을 시작한다.

북한인권 운동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을 그동안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면서 앞으로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베델한인교회 후임은 15세 사역자 김한요 목사로서 모든 인수인계를 마치고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갔듯이 손 목사는 교회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북한인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기도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를 만나봤다. >> 3면에 계속

다음 주는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ASE
유림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 한기홍 목사

2014 온가족 신년축복성회

2014년을 맞이하여 은혜한인교회에서는 3대가 함께 은혜받는 은혜이슬 새벽 부흥회와 온가족 축복성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인 귀한목사님들을 초청하였으니 참석하셔서 온 가족이 은혜받고 새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종진 목사 초청
 일시: 2014.1.23(목)~26(주일)
 목,금(저녁7:30),토요일(저녁7:00),주일(1부:~4부)
 장소: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강사:피종진(남서울중앙교회)

Nyskc World Mission(New York) 총재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1/6(월) 5:20am	1/7(화) 5:20am	1/8(수) 5:20am	1/9(목) 5:20am	1/10(금) 5:20am	1/11(토) 6:0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강사: 전원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강사: 민경엽 목사 (O.C 나침반교회 담임)	강사: 박희민 목사 (나성영교회 담임)	강사: 임영민 목사 (O.C.제일장로교회 담임)	강사: 이 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담임)

주제: 성전의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일시: 2014.1.6(월)~11(토), 월~금 5:30am/토 6:00 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일성령집회 8:00p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한인 단체와 개인들이 모은 사랑의 쌀이 배부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연성 총영사, 박효우 교협회장, 전재학 목사, 홍성관 목사, 류당열 목사)

온정의 손길들 어려운 이웃에 전달돼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 1차 배부가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총영사관에서 진행됐다. 1차 배부식에서는 남가주교협 회장 박효우 목사와 LA총영사관 신연성 총영사와 교협 관계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신청한 기관들에 배부했다. 1차 배부는 갈보리믿음교회, 은혜한인교회, 주안예교회, LA종교평화

협의회 원불교 LA교당에서 진행됐으며, 28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예정인 2차 배부는 LA한인회, 나성동산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풍성한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주안예교회, 총현선교교회, 드림교회, 유니온성결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아름다운교회, 나침반교회, 은혜한인교회 등에서 진행된다.

매년 남가주 교계가 연합해 진행되는 이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교회 및 사회봉사기관,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어려운 학생들, 개인신청자 등 1만 명에게 쌀 1만 포를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금 보낼 곳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Pay to: CKCSC-사랑의 쌀) >후원 문의: (323)735-3000



주성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주성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드려

주성선교교회(담임 손태정 목사)가 12월 22일(주일) 오후 6시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2012년 5월 13일 창립한 주성선교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하와이안 가든 시온마켓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 주성선교교회는 큐티 사역, 가정 사역, 개척 사역, 교육 사역, 기도 사역의 5대 비전을 갖고 있다.

이날 예배는 손태정 목사의 인도로 강남중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마리아의 큐티와 큐티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종경 목사(총현선교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럼에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손태정 목사와 성도들이 협력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손태정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이다”라며 “성전 이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순간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주성선교교회 부설로 세워진 주성학원은 우수한 교사진을 갖추고 K-12학년전과목학습을 지도한다.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는 학원비를 특별 할인해 준다. 문의) 562-896-0691

갓스이미지, 굿네이버스 USA 홍보대사 위촉

아프리카 차드 우물 및 과테말라 아동초청 후원에 협력



굿네이버스 USA 마동환 이사장이 변용진 목사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12월 21일 갓스이미지(대표 변용진 목사)가 워터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0년부터 인연을 맺은 굿네이버스와 갓스이미지는 매년 1회 이상의

공연을 굿네이버스의 아동들을 위한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특별히 2012년과 2013년 정기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 우물 후원, 과테말라 아동초청 및 후원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 갓스이미지는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로서 연 4회 정도의 무

지컬 공연을 기획해 굿네이버스 32개 국가의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갓스이미지는 미국 한인 교포 2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찬양과 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뮤지컬프로덕션 미니스트리다.

1990년 변은경(Sandy Byon) 사모의 지도 아래 12명의 아이들이 추수감사절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 후 2000년도부터 주정부에 등록된 정식 선교단체로 서게 되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LA를 중심으로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브라질, 파라과이, 캐나다 등지에서 지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문의) 877-499-9898(굿네이버스), 714-307-4647(갓스이미지)

김나래 기자

“실버 어르신들, 메리 크리스마스”



실버아카데미가 마련한 행복잔치에서 즐거운 식사가 이뤄지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인 실버아카데미(원장 곽소건 목사)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 지난 19일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복잔치>를 마련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행사는 1부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등 캐롤을 부르고 율동을 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참석자 모두에 드리는 행복선물 증정과 함께 신바람 성탄공

연이 마련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3부에서는 점심식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실버아카데미에서는 매년 어버이날, 추석, 성탄절에 지역 노인을 위한 행복잔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중 모임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 섬기고 있다. 문의) 714-329-7906, www.silveracademy.org

김나래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HANARO 2014 뜻/을/따/르/면/길/을/여/신/다

임직예배

Installation and Ordination Service

일시: 2014년 1월 5일(주일) 오전 10시

장로장립: 국성호
집사취임: 전풍원
집사장립: 전신원 정진무 주원 최종훈
권사취임: 조승애 차정숙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일시: 2014년 1월 6일(월)~11일(토) 월~금. 새벽 5:30 / 토. 새벽 6:00

주제: 뜻을 따르면 길을 여신다 [강사: 양성필 목사]

문의: 626.912.6600 www.hanarochurch.org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하나로커뮤니티교회 HANARO COMMUNITY CHURCH

이민목회 마침점... 이젠 북한 인권 위한 '그날까지'

“은퇴가 취임보다 10배 더 힘들어, 교회 안팎으로 섬길 수 있을 때 떠나게 돼 감사”

▶ 1면으로부터 계속

-북한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제가 은퇴를 쉽고 수월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23년 동안 베델한인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골프치고 크루즈 타려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야심찬 일을 위해서 은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23년 동안 50명이 안되는 교회에서 지금의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으니 지금은 큰 애착이 없습니다.

저는 2004년 9월 27일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선두에 서서 임하고 섬기며 북한 해방과 자유를 위한 통곡 기도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브랜드이미지 됐죠. 이 기도운동을 통해 동독과 서독이 하나됐듯이 북한도 무너지고 남한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장성택 실각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포로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소비에트 공산정권도 70년 만에 정확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31일까지 정리하고 1월 초부터 서서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통과된다면 3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04년에 1600명이 되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북한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생 브라운백이라는 상원의원이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북한인권법이 발효됐는데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되게 하려면 기적과 같은 그때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에서 내년 10월 말에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매우 많은 단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힘을 합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전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유럽, 일본, 남미, 중미,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의 30개 도시에 KCCC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서 한국, 미국, 유럽 등에 다니면서 활동하게



손인식 목사가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며 비전을 밝히고 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년 중반 이후에 사무실을 내려고 합니다. 베델한인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내면 교인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서 교회에 큰 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양 무리와 결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 됩니다.

-지난 23년 동안 목회를 해 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처음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버티겠다는 저에게 유일하게 청빙하겠다는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42세 한창 나이였는데, 캘리포니아 알바인에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 생긴지 1년 만에 장로파, 담임목사파로 갈라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온 곳이 장로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무지하게 싸웠더라고요. 한 집사가 자동차 트렁크에 권총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습다.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죠. 그때로서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으니 2년만 붙어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23년을 있게 해 주셨고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지금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흥하게 하려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이지 저는 부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적절한 때에 저를 보내신 것은 틀림없는가 봐요.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한 단어는 위로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도 위로더라고요. 한참 위로에 대한

설교를 던지기만 해도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은사가 위로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기 오기 전에는 동부에서 17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동부에서는 교회에 올 때 넥타이에 정장을 차려 입고 오는데 여기는 교회에 샌달을 신고 오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예배에서 전통적이고 예의를 갖추고 따뜻한 것들을 맞아야 할 때에 저를 알바인에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때에 한창 동부에서 서부로 사람들이 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섬세해 하는 교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4개월 동안 차기 담임 김한요 목사 와 동사무회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한 셈이죠. 그 전까지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그만둔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죠. 동사무회를 하는 4개월 동안 '김한요 목사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봐 주고 김한요 목사는 말씀 강좌를 이끌고 하면서, 너무 흥미로운 것은 3-4개월이 지나니가 같이 떠나자고 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동사무회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은퇴가 취임보다 1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쪼개지고 힘들고 갈라진 교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왕성하고 교회 안팎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때에 목회를 넘겨주고 떠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을 위한 통곡기도 운동을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두 사람이 있어도 당이 생기는데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를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사실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에 이뤄지고 있는 홀로코스트, 지난 68년 동안 650만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먹이지 않고 무기나 만드는 것을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동안 홀로코스트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국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의 복수를 막으려고 하는 시위는 생명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기도연합 운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훗날 김일성 광장 앞에서 통곡기도회를 여는 것이 마지막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상에 맡기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가뻐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독일도 네 번 갔다 왔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아무도 통일을 믿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동독의 한 대변인이 잘못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북한 기도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얼마동안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암만

지원해도 결국에는 핵폭탄이 되어 날아 오고 군비만 증축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견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의 간증을 듣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2004년에 교회 표어를 붙이고, 2005년에는 “그날까지”라고 붙여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도하는 동지 교회가 전국에 150여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이고, 봉화가 울리면 모이는 교회가 1400개 정도 될 것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교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논리를 정치적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토마스 맹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해부학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신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의 지향입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맨드레이크, Wilshire

로봇다리 김세진 군이 전하는 “희망”



Higher Calling Conference 후원 위한 간증 집회 열려

동양선교교회에서 Higher Calling Conference(이하 HCC) 후원을 위한 간증집회가 20일 오후 7시에 열렸다. Higher Calling Conference는 다음 세대를 훈련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KCCC의 집회로 올해는 12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3박 4일 동안 샌디에고에서 열린다.

이 간증집회에는 ‘로봇다리’라는 별명이 붙은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세진(16세) 군과 그의 어머니 양정숙(45세) 씨가 초청돼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낸 기적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또래에 비해 체격이 건장한 세진 군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무색하게 만들만큼 밝은 표정과 옛지지만 당당하고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신을 로봇다리라고 소개했다.

“저는 로봇다리 김세진입니다. 훈련을 위해 수영장에 가면 ‘애 때문에 물 더러워 진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쫓겨났습니다. 저는 선천성 무형성장애로 두 다리와 팔에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10월 말에 열린 ‘2013 장애인 아시아 청소년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땀습니다.”

수영선수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은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4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학교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장애인으로서 학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6과목 중 4과목을 A+를 받았다고 당차게 말한다.

그는 그의 특별한 다리처럼, 그와 어머니의 만남 역시 특별했다고 말한다.

“아이를 낳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배가 아파서 낳는 자연분만이고, 또 하나는 제왕절개고 마지막 하나는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수원의 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엄마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어요. 제 다리와 손이 보이지 않고 제 눈이 예뻐 보였다고 하세요.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마음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이 로봇다리라는 별명에는 그가 남들과 다른 신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한 기억이 얹혀 있기도 하다.

“저는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배운 말이 있어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다리가 없는 피노키오가 됐다’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어릴 때 꿈은 피노키오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족을 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술을 합니다. 4살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견고 싶었기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저를 보시며 우는 엄마에게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곁을 수 있

도 했다. 결정적으로 수영에 도전하게 된 것은 닉 부이치치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닉 부이치치가 수영을 한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게다가 수영은 재활에 무리가 없는 적합한 운동이었다. 물을 정말 싫어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물 속에 그냥 던져 넣었고, 살기 위해 수영을 해야 했다.

그렇게 수영을 시작한 그는 7년간의 선수생활을 하며 120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총 150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또 지난 9월 총 300명이 출전, 218명이 완주한 뉴욕 허드슨강에서 열린 10km 리틀 레드라이트 하우스(Little Red Light House) 수영대회에서 전체 21위, 18세 미만으로는 1위의 기록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취 뒤에는 흡

이가 세상에 나가면 ‘네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맑은 말을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이라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과 귀에 약을 바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김세진 군은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양정숙 씨의 단호함이 있었다.

“영부인과 케이크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가 영부인에게 말을 걸자, 세진이도 이에 질세라 영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살아?’ ‘할머니, 집은 몇 평이야?’라는 세진이의 질문에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제게 왜 세

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이리와 봐, 축구하느라 힘들었지, 아줌마가 햄버거 사줄게’라고 말하고 햄버거 집에 데려 갔습니다. 햄버거를 다 먹어갈 때쯤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사실은 너희들 하는 거 다 봤어’라고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개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물통을 그 아이 앞에 갑자기 들이 밀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아줌마, 왜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전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아프지 않았을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 애 엄마야. 너희가 내일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서 미안하고 한 마디만 해 줘. 그러면 너희도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거고 그 아이도 너희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거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세진 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누나 김은아 양에 대해서도 전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은아 양은 갑자기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생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을 향한 세상의 멸시를 대신 감내했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그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런 은아씨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 양정숙 씨는 “자기 동생을 사랑한 만큼 기대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말한다.

16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깊고, 어느 숙련된 강연자 못지않게 말을 잘 하는 세진 군에겐 교수가 되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는 꿈이 있다. 이번 HCC에도 참여해 자신의 삶에 오롯이 새겨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문의) 213-389-5222

주디 한 기자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지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수영을 하게 된 계기는 재활을 위한 훈련이었다. 재활을 위해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걸어 다니고, 거실에 매트 깔아 놓고 매일 넘어지는 훈련을 했다.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기도하며 훈련을 하던 중 불빛이 보여요. 그때 알았죠.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예요.”

걷는 훈련 중 수차례 넘어져야 했던 그에게 엄마는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넘어지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는 라틴댄스, 승마, 스키, 마라톤 등 다양한 도전을 했다. 9살 때 로키 산맥을 등정했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한 후 상품으로 받은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장애인야학교에 기증하기

사 ‘게모처럼’ 혹독하게 자신을 밀어붙인 엄마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양정숙 씨는 “세진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니? 그럼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하자”며 그를 독려했다. 또 그는 아들이 생김새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많은 일들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는 왜 힘든 수영을 하는지에 대해, “자유로움 때문”이라고 답한다. “물에 제 몸을 맡기고 팔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라고 답한다.

김세진 군으로부터 마이크를 이어받은 양정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다. 마치 분노라도 품고 있는 것처럼 큰 목소리를 통해 아들을 키워오는 동안 가슴 속에 꼭꼭 담아뒀던 많은 사연들이 흘러 나왔다.

“저는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진

진에게 영부인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칩니다. 예의는 가르치지만 돈, 명예,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비굴해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진이를 입양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찾자간 그에게, 정숙 씨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누구 앞에서든 여자가 되지 마라. 세상에 맞서 싸우지 마라. 좋아도 참고 네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네 자식은 네 그림자이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네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양정숙 씨는 아들의 로봇다리에 얽힌 한 사건을 이야기했다.

“세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들이 세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서 집에 온 세진이를 보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채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바이블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2014년 1월 6일부터 아래와 같은 강좌들을 개설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해에는 자녀들과 함께 성경원어를 배우십시오. 현재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에는 8-11세의 어린이들 5명이 부모님들과 함께 희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이들은 원장의 지도하에 희랍어 성경을 그리고 이어서 플라톤과 호머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앞으로 세계정상급의 신학자들이 탄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는 성경과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께 깊이 있고 체계적인 성경공부 및 신학강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정상급 신학자, 인문-사회학자 그리고 각 분야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I. 성경어원강좌

시간	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1교시: 6-7시 p.m.		희랍어 I	히브리어 I	라틴어 I
2교시: 7-8시 p.m.		희랍어 II		

- 기 간: 2014년 1월 6일 - 2014년 3월 31일 (강의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수강료: 성인-100불; 중고생-75불; 초등학생-50불 (3개월분)

II. 무료 성경강좌

2014년 1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에 “사도바울의 희랍선교”라는 제목의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16-18장을 당시의 사상적 배경에서 재해석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희랍사상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장 소 : The First Baptist Church
- 주 소 : 760 S. Westmoreland Ave, #14-16, LA, CA 90005 (8가 +버몬과 후버 사이)
- 전 화 : H, 213)386-6632 C, 213)200-9174
- Email : syngwonsuh@yahoo.com

강사소개: 서승원 목사 (Ph. D.)

I. 학력

1972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졸업
1974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졸업
1976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중퇴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
1977-1991년: 희랍국비장학생으로 국립아테네 대학교에서 고대희랍철학, 종교, 문학, 역사 등 문화일반에 관해 연구
1991년: 동 대학교에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 취득 (Summa Cum Laude)
1999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 입학
2000년: 교수들의 추천으로 2년간의 Full Scholarship을 받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로 전학 (재학 중 교수들과 학생들을 지도)
2002년: 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002년-2012년: 히브리어원전 성경과 Judaism 연구

II. 경력

1992년 3월-1994년 7월: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고대희랍철학 강의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이제 비로소 강의다운 강의를 듣게 되었다는 평을 들음)
1995년-2011년: 월드미션, 베네스다, 미주총신 등에서 신학, 철학, 희랍어, 히브리어 강의 (신학교학생들로부터 한국제일의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평을 들음)
2013년 2월-8월: 유인대학교 신학대학장
2014년 현재: Bible Academy 원장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의 의미

누가복음 2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눅21: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렵돈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돈 주머니를 왼손으로 주켜들고 오른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휘휘 저으면서 돈이 많이 있음을 과시하고 그 중에 얼마를 집어 연보궤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금화도 은전도 아닌 동전, 구리로 만든 단위가 가장 낮은 돈 두 렵돈을 넣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다소곳하게 얼굴 들기도 어려워 민망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과부는 가치 단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헌금 가치의 기준이 금액의 단위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부의 과거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가난한 과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 과부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지만 굶어 죽을지에 대한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남은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 속에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

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의 정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가진 것 모두를 드리는 믿음

미국 텍사스 달라스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초대받아 간 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초대하신 목사님은 하루에 2천불 이상을 버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면 4만 불을 버는 셈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한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두 분이서 이백 불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이 내외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디 잘만한 처소도 구하지 못해서 그곳 예배당 긴 의자에서 잠을 자고 교회 화장실에서 씻으며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감동이 오기를 본문 말씀인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리고 굶어 죽었을까? 아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의논했더니 남편은 부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설교가 생각이 났다면서 가진 돈 이백 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백 불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백 불씩 헌금을 하니 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로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냐고 물으니 교회에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대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심방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저희들은 집이 없습니다. 이민을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했더니 금세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될 것 같은 표정을 보고는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밤을 맞이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 다시 교회로 갔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 않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룻밤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

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신발 수리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며 서투른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게 주인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주인은 사정이 딱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며 한 달에 돈 칠백 불을 주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방세를 내기엔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그 부부는 당분간은 교회에서 기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일해주고 사백 불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후하게 채우시는 은혜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항상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일에 열심을 다하니 4년이 지난 뒤에는 일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가야 하니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한 달에 얼마씩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한 달에 4일 정도만 일하면 보내줄 돈은 다 마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집사님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둘 정도로 가게가 번창해지자 부인이 신학교를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사용하면서 남미 여러 나라, 멕시코나 개발도상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인 추수회를 만들고 그곳에 운영자금으로 매년 11만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색함 없는 헌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구입한 집이라고 하며 하

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돈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돈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하나님도 인색해지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두 드렸더니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임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는 만큼 더 많은 물질의 밀전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멀어지고 말 것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

우리의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후하게 살다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리석음에 머물렀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렵돈으로 가장 많이 드린 정성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주일 오전 7시30분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기본소리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박사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저주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른 로마는 그곳의 성을 헐고 사람을 죽이며, 주위에 소금을 뿌림으로 황무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정복하고 소금을 뿌려 황폐하게 합니다(삿 9:45). 신명기 29장 23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을 받아 황폐한 사막이 되는 것을 "그 온 땅이 유향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

전, 창세기는 그 골짜기에 물이 많아서 여호와와 동산, 즉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의 유향불 심판으로 모두 타버린 후에, 그 골짜기는 황폐하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심판하심으로 황무한 땅, 저주받은 땅, 식물이나 생명이 살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소금바다도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즉 죽음의 바다입니다. 시편 107장 34절은 옥토가 염전이 되는 이유, 즉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이유가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죄악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을 행하는 땅은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향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전쟁의 결과로 황폐화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변화"에 굴복합니다. 샘물이 나는 곳이 사막이 되었다가 사막이 숲이 됩니다. 그 숲이 다시 염전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과 황폐함입니다. 선의 결과는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마이크로폰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한번은 핏필드 목사가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을 때 소문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과연 핏필드 목사의 설교를 한 자리에서 몇 명이나 들을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았다고 한다. 먼저는 목사의 가장 앞 좌석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어디까지 음성이 들리는가를 측정해 보았고 그리고는 뒷쪽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들리는가를 측정해 보았다고 한다. 그 범위 안에서 과연 몇 명의 청중이 설 수 있는지 측정할 결과 놀랍게도 한 자리에서 최대 삼만 명까지는 그의 육성으로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좋지 않아 설교에 다소 부담이 있는 편이다. 조금만 말을 해도 목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도 있다. 스스로 판단하건대 여기에는 심리적인 면도 있고 체질적인 면도 있다. 예전 같으면 결코 설교자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마이크 때문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덕분에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본래의 목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로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어디 마이크뿐이라? 그 외에도 내게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런 약함을 때로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모자람을 넘침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대상에 선 연약한 목사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마음과 생각, 부모의 역할



제이슨 송 교장
세언약초중고등학교

음에 흔적을 남긴 생각이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 부모를 향한 쓴뿌리(root of bitterness)로 자리잡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아픔과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부모로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녀들의 문제가 그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크면서 겪는 거야"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단순한 답을 주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은 친구, TV, 인터넷, 채팅, 그리고 여러 대중매체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과격하며 문란한

생각, 이미지, 영상, 언어,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고. 왜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이고 그릇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부모들은 이해해야만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엄마와 딸만의 새벽 데이트, 아빠와 아들만의 운동시간, 가족들만의 일일여행, 함께하는 주일 저녁 식사, 매달 1회 가족이 함께 극장에 가기, 아니면 집에서 비디오 함께 보기, 정기적인 가족 예배,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보드 게임 등 방법은 많다.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부모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차 있는지 우선 돌아봐야 하며, 삶의 목적을 재점검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잠언 4:23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다.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다음 세대에 남겨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돈도 좋고 집도 좋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좋은 생각, 기억할 때마다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추억, 격려의 한 마디 그런 것이 아닐까? 2014년엔 하루에 한 가지씩 따뜻하고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나누는 그런 부모가 되자. 자녀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추억과 부모를 향한 따뜻한 기억으로 장식해 보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그 중 대부분은 타인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 속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다 현실로 이뤄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없다." 즉, 남을 해치고, 어렵게 하고픈 과격한 생각들이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이다. 물론 따뜻하고 좋은 생각들도 많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이기적이고 과격하며 파멸적인 어두운 생각들이 더 많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까? 부모가 바라는 만큼 밝고 깨끗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들이 아직 어리기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30~40%는 손을 든다. 물론 이 생각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니며, 가끔 부모와 마찰이 있을 때 느낀 일시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마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쁜성탄을 축하합니다.

주향교회

김신 목사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수요찬양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T. 213) 383-4951 http://www.joohyang.org/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초강력 음이온 매트!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100%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Daily health benefits:
● deep sleep ● backache & shoulder ● whiplash & TMJ ● leg & foot cramps ● neck & shoulder ● foot & ankle ● muscle cramp ● backache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히트 상품!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100%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Provides more negative ions than a forest or waterfall.
●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매트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많은 건강 매트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잡니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델 브레드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 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히 낮추었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3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5 year WARRANTY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에어 전신 스윙 안마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FUJITA KN9003 / 2013 최신행!
BEST SELLER! 소비자 만족 1위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SALE \$4,200

일부다처제 합법 후, 동성결혼자 중혼 문제도

무너지는 미국의 결혼 가치관에 심각한 우려

미국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중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타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일부다처제를 헌법적 권리라고 판결해 큰 논란이 됐다. 법원은 수정헌법의 종교자유에 의거해 원고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동시에 법적 결혼을 1명과 한다면, 나머지 다수의 여성과의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즉, 결혼증명서 상 결혼한 사람이 1대 1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문제로 오면 이마저도 지켜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주마다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동성간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받지만, 불법인 주에서는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실

제로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 거주하는 남성이 남성과 결혼한 후,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의 여성과 또 결혼하려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이 거주하는 주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혼을 한 것이기에 불법이지만, 여성이 거주하는 주에 따르면, 결혼 자체를 안한 상태이기에 중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중혼이 불법인데 주마다 동성결혼에 관한 다른 규정으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윤리도덕적 면은 물론이고, 사회보장혜택, 면세 및 유산 상속 등에서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 어느 주에서 동성결혼을 했는지 밝히길 거부한 이 남성은 현재의 배우자 남성과는 이혼하고 이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여성

이 거주하는 노스다코타 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스다코타는 주 헌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남성이 노스다코타 주에 거주하기만 한다면, 동성결혼한 남성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과거에 거주했던 주로 돌아간다면 중혼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노스다코타 주의 웨인 스테니젠 법무장관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그가 결혼 증명 신청서에 자신의 현재 결혼 상태를 ‘독신’ 혹은 ‘결혼한 적 없음’으로 기재해도 범죄가 아니며 중혼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죄를 인정하라고?” 덕 다이너스티 필 로벗슨 지지 확산

프랭클린 그레함, 그렉 로리, 마이크 허커비, 바비 진달, 러셀 무어 등 공개 지지



지난 7월 텍 워렌 목사의 새들백교회에 초청되어 강연하고 있는 필 로벗슨의 모습. ©새들백교회 영상 화면 캡처

미국에서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리얼리티 쇼 주연 배우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연 정지를 당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케이블 채널인 A&E네트워크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덕 다이너스티(Duck Dynasty)’의 필 로벗슨(Phil Robertson)은 보수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덕 다이너스티’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에 거주하는 로벗슨 가족의 실제 삶을 다룬 이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는 오리 사냥용 수공예 피리를 만드는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미국의 전통적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 큰 인기를 얻었다. 필 로벗슨은 최근 남성 매거진 GQ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동성애는 죄’이며 ‘미국은 동성애를 회개해야 한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밝혔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A&E네트워크는 로벗슨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그의 발언은 방송사의 관점이나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그의 관점은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해 왔다”며 “우리는 그의 방송 출연을 무기한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송사의 결정은 쇼의 시청자들과 기독교계의 큰 항의를 낳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 시청자들은 방송사측의 결정에 반대하는 뜻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독교계에 해당 방송사 보이콧을 요청하고 있으며, 방송사 사이트에도 항의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브라이언 레퍼드는 “인터뷰에 대한 개인적 답변으로 그를 ‘벌’ 주다니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들은 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청자인 크리스티 맥르머 어 허킨스는 “덕 다이너스티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출연자들의 신앙 때문이다. 그런데 그를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처벌하다니 실망스럽다.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채널을 시청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다. 필 로벗슨은 평소에도 동성애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으며, 이로 인해 LGBT 단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GLAAD는 로벗슨의 견해를 문제 삼으며 프로그램 중영을 촉구하고 있다. 필 로벗슨이 A&E네트워크로부터 출연 정지를 당하자 이 가족들은 모두 TV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주인공이 빠진 상태에서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촬영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방송사의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의 가족들은 “비록 그의 답변이 거칠었지만 그의 신념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다”며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가족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

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계 지도자들의 반대도 거세다.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필 로벗슨이 희망하는 바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지하도록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로벗슨 가족의 기독교적 가치를 향한 헌신을 높이 사며 나의 친구 필 로벗슨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의 그렉 로리 목사는 “우리는 동성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지지한다. 다른 모든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관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회를 향해 동성애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려고 요청하던 동성애자들이 요즘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고 지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러셀 무어 남침례회 윤리및종교자유위원장 등이 필 로벗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인기를 얻은 TV 프로그램의 배우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방송국으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자 기독교계가 발끈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친동성애적 사회의 반동성애를 향한 역차별 현상 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전 풋볼선수이자 유능한 스포츠 진행자였던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애에 반대했다고 폭스스포츠에서 해고당했고 ESPN의 크리스 브루사드도 동일한 발언을 했다가 ESPN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손헌정 기자



인기리에 방영 중인 리얼리티 다큐 〈덕 다이너스티〉의 포스터 ©A&E네트워크

존 케리 국무장관 “성경 읽으며 신앙 되찾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신앙을 잃었다 다시 회심하게 된 경험을 나눴다.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ABC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당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하나님의 존재의 현현(epiphany)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고통에 대해 다룬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며, “그 때 나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부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깨달았다”며,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성경을 다른 부분들을 읽다보면 고통과 역경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나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볼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 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것이리라

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큰 틀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진정으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Here on Earth, God’s work must truly be our own)’라고 말했고 이 말이 나의 깨달음을 잘 요약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인터뷰는 케리 국무장관의 베트남 방문 일정에 맞춰 호치민에서 이뤄졌다. 손헌정 기자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문의: 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이야기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성경, 감자, 그리고 비누

한국에 주재(駐在)하는 선교사들이 오기 반세기 전에 선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간 선교사 몇이 있다. 이들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온 사람들로 한국교회 역사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는 프러시아계 독일인으로 의사이며 목사였던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f)이다.

그는 1803년 7월 독일 포메라니아(Pomerania) 지방의 피리쯔(Pyritz)에서 유태계 독일인으로 태어났다. 그는 독일 경건주의운동의 발상지였던 할레(Hall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일찍이 선교사가 될 포부를 갖고 1826년 네덜란드 선교회 파송을 받고 동남아 자바 지방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역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차에, 불행히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을 안고 본래 의도한 중국으로 떠났다.

그는 1831년 요동반도를 거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그는 같은 해, 6개월에 걸쳐 중국 동해안과 만주로 전도 여행을 하였다. 그는 이 여행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귀츨라프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이 선교 여행에서의 성과 때문이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1천톤 급의 군함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를 무역선으로 중국,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지로 교역을 트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였다.

이 배의 선장이었던 휴 린데이(H. Lindsay)는 귀츨라프에게 통역, 선의(船醫), 선목(船牧) 등의 자격으로 승선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귀츨라프는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 한국에 오는 첫 선교사로서의 기록을 남겼다.

리들이 문정을 위해 배 위에 올라왔다. 그들이 검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 감자 기 일기가 불순하여 그 날 밤을 배 위에서 지내게 되었다.

귀츨라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생각을 했다. 배에 올라온 흥주 목사(牧使) 이민회(李敏會)의 서생(書生) 양씨(梁氏)에게 한자로 주기도문을 써주고 한글로 그 옆에 토를 달아 번역하게 하였다.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첫 번째 일이다.

또 한 가지 한국사에서도 특기할 일은, 귀츨라프가 섬사람들에게 감자 씨를 주면서 그 심는 법과 재배법을 가르쳐 준 일이다. 귀츨라프는 섬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그들의 식품으로 갖은 감자를 가져다가, 나누어 먹게 하지 않고, 해안에 둔덕을 만들어 100여 군데 심어 주면서 한문으로 그 재배법을 써 주었다.

그러나 섬사람들은 외국의 식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국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귀츨라프는 이것은 좋은 식품이니 잘 재배하여 굶주림을 면하고 배불리 먹고 살라며 섬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가 떠나 후, 몇 개월이 지나 섬사람들이 둔덕을 파 보니 주먹만 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섬사람들은 이것을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생으로도 먹어 허기를 면하였다.

처음에 이것은 마령서(馬鈴薯)라 불리다 후에 감자라 불렸으며, 충청도 일대에 퍼져 나간 후,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귀츨라프는 감자를 당장 먹게 하지 않고, 재배하게 함으로써, "고기를 잡아주면서 먹게 하지 않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귀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이 감자를 재배하여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귀츨라프의 공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귀츨라프는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양식인 성경과 육신의 양식인 감자까지 주고 고마운 선교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귀츨라프는 섬사람들에게서 나는 악취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리에서, 입에서, 몸에서 옷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풍겨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무엇보다 비누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누는 사람의 몸과 의복과 생활을 정화 시키는 귀한 물품이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요, 감자는 인간 육신의 삶을 이어주는 먹거리라면, 비누는 인간의 삶을 정화시키는 필수품이다. 인간에게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도 정결해야 하는 법이다. 귀츨라프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요긴한 성경과 감자를 주고 갔다. 비록 비누는 주고 가지 못했지만, 마음 속으로 이 민족에게 비누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떠나갔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게 되었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먹거리 문제, 그리고 걸사람의 정결까지 유지하게 된 것은 선각자 귀츨라프 선교사의 은덕이라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꼭 기억해야 하는 귀한 분 중 한 분이다.

(계속)



귀츨라프 선교사의 초상화

로드 암허스트 후는 1832년 2월 중국 마카오를 떠나 7월에 한국 서해안 황해도 백령도를 거쳐 충청도 홍주목판(洪州牧判) 불모도(不毛島)에 도착한 후 고대도(古代島) 안항(安港)에 예인되었다.

선장은 그 지방 관리들을 통해 국왕 순조(純祖)에게 통상을 원한다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 때 선장의 권고에 따라 귀츨라프가 전도용으로 갖고 온 한문 성경 두 권과 서양포(西洋布), 시진표(時辰表), 천리경(千里鏡) 등의 선물을 함께 보냈다.

서울로부터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귀츨라프는 한국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관리들의 감시가 소홀할 때 귀츨라프는 섬에 상륙하여, 섬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성경과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그의 항해기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준 사실을 기록했다.

“우리들은 해변에 상륙하여 큰 어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정부 관리의 감시가 없는 해안이었으므로 어부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하여 주었다. 내가 복음서를 몇 권 주었더니 그들은 너무 고마워 답례할 물건이 없음을 미안히 여기면서 앞담배 몇 개를 주었다.”

귀츨라프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문 복음서를 전해 줌으로 성경을 전해 준 선교사로 기록된다.

귀츨라프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한국 교회사와 한국 역사에 뜻 깊은 일 두 가지를 한다. 한국 교회사에 뜻 깊은 일은 그가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일이다.

암허스트호가 도착했을 때 마량진에서 관



중국식 수부 복장을 하고 있는 귀츨라프 선교사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교회 목록: 갈릴리선교회, 갈보리민음교회, 나눴다와 섬김의 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제일교회, 남가주리디머교회, 새로남교회, 성재복음선교회,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영생장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한우리장로교회, 강진웅 담임목사, 박헌성 담임목사,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김경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최윤형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대포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평화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성영 목사
베리나 및 수양관 사용 여의문의 환경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니 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 / 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하시라!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할금 오전 5:30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움)
금요일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움)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스페인어 오전 10:00 오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반)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 목회자들이 2014년도 금식기도로 한 해 시작



뉴욕목사회 42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가 19일 뉴비전교회에서 개최됐다.

뉴욕의 목회자들이 뉴욕교계의 부흥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해 2014년도에도 금식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새해를 기도하여 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뉴비전교회에서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2014년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 개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월 1일 오후 5시부터 1월 3일 정오까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포도코 파인힐 수양관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는 한국의 반여제일교회 담임 윤병이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주요 기도제목은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목회자 영성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등 4가지로 정해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직들이 함께 참여하는 뜨거운 집회가 될 전망이다. 강사 윤병이 목사는 예상 구개혁 측 출신 신대원 졸업 후 총회서기, 부산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구개혁 측과 예상합동 교단을 통

합한 이후 총회부흥사회공동회장, 부산신학대학 이사,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기독교기독교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2013년에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핀브룩수양관에서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 금식기도성회'를 갖고 뉴욕과 미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분을 보인 바 있다. 이에 2014년 또한 기도도 화합하는 뉴욕목사회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이번 신년 금식기도성회를 위해 임실행위원회에서 이성한 목사(행복한교회)를 준비위원장으로 세우고 준비를 맡도록 했다. 총무 유상열 목사는 "성회 준비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여러 수양관을 살펴봤을 때 500명 수용인원의 파인힐 수양관의 여건이 가장 좋았다"면서 "목회자들은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도 교회 일을 도울 중직 3~4명과 함께 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효신장로교회 재난지역돕기 자선음악회



뉴욕효신장로교회가 재난지역 선교지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22일 열었다.

재해지역 선교사역 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22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매년 연말 자선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해외의 선교지들을 도왔던 뉴욕효신장로교회는 올해는 특별히 지난 11월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과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고통 받았던 일본의 선교지를 위해 자선음악회 기금을 전달했다. 합창은 뉴욕효신장로교회 연합성가대가 맡았으며 지휘에 양군식, 소프라노 박진원, 소프라노 서혜영, 알토 조공자, 테너 한문섭, 베이스 박요섭, 피아노 이주연 등이 참여했다. 음악회는 문석호 목사의 인사말과 재난지역기금 전달식에 이어 뉴욕교협 회장 김승희 목사의 기도도 시작됐다. 이날 문석호 목사는 이번 자선음악회 티켓판매 등의 수익금 5천불을 김승희 목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문석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이 받은 그 사랑을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신다"라면서 자선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영적 암흑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아틀란타한인교회, 한인회관 건립성금 1만불 쾌척



아틀란타한인교회가 한인회관 건립성금 1만불을 쾌척했다.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한인회관 건립성금 1만불을 쾌척했다. 20일(금) 오전 11시,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의석)를 찾은 김정호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주일 건립기금 특별헌금 시간을 통해 견허진 성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호 목사는 "몇 주 전부

터 광고를 해 필리핀 구제헌금과 한인회관 건립기금 특별헌금 시간을 가졌다. 아직 1만불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먼저 약정한 금액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백규 건립위원장이 10만불을 약정한 것을 보고 격려차원에서라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앤더슨 김 기자

타코마연합장로교회 나균용 목사 27년 사역 은퇴

오는 29일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

타코마연합장로교회 나균용 목사가 동 교회에서의 27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공식 은퇴한다. 나균용 목사는 은퇴와 함께 타코마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다.

타코마연합장로교회는 오는 29일(주일) 오전 11시에 나균용 목사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를,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사역 회고와 간증 시간을 갖고 나 목사의 사역을 하나님께 봉헌할 예정이다.

나균용 목사는 1986년 9월, 타코마연합장로교회 4대 목사로 부임해 27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다. 나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공한 목회'라는 신념하에 철저한 성경중심의 목회를 지향해 왔고, 목회와 더불어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목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미국의 부흥을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으로 여겨, 나이스크를 통해 1.5세 2세대의 선교 동역화를 이끌어 왔다.

나균용 목사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데서 온다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며 "타코마연합장로교회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얻은 구원의 고귀한 가치를 전파하고, 거룩함과 절제를 가르치고, 정립된 성경 교육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균용 목사는 한국에서 경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감리교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와 포틀랜드 오레곤의 웨스턴 에반젤리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석사, 플로리다 템플의 페이스신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전임강사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천문교회 담임목사, 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웨이스연합



타코마연합장로교회 나균용 목사.

신학대학 교수 및 학감, 타코마 지역 교역자협의회 회장, 대한성서공회 개역성경 교정위원, 퍼시픽유니온 세미나리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엠마오신학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한편, 타코마연합장로교회는 동 교회 5대 목사로 곽호준 목사를 내정하고 1월 중 곽 목사의 취임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나균용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

일시: 2013년 12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 타코마연합장로교회 본당

사역 회고와 감사와 간증의 시간

일시: 2013년 12월 29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타코마연합장로교회 본당 및 친교실

주소: 720 121st. St. E. Tacoma, WA 98445

문의: (253) 537-2246, (253) 266-9466 (권효복 장로)
김브라이언 기자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 하나님께 돌아오자

워싱턴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 황선규 목사) 제 62차 정기기도 성회가 지난 19일 웨드렐웨이 등대교회(담임 박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워싱턴주 각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기간에 기도도 주 앞에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더욱 사역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설교는 김요안 목사(한미연합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자"(말3:7-10)란 제목으로 전했다. 일본어가 유창한 김목사는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일본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시간들을 되돌아 보면 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며 "새해에는 마음을 다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독려했다.

김요안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망설일 수도 있는 십일조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십일조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결단을 드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삶 가운데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익을 우선시 할 때가 있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진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요안 목사.

한편 이날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참석자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워싱턴주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일선 선교사와 후방 후원자들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불신자 전도를 통한 중소교회의 부흥과 2세 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증병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황선규 목사는 "워싱턴주 지역 중보기도자와 선교동역자들이 매달 한 번씩 함께 모여, 전 세계와 지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형제가 연합해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사역임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2014년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시애틀 목사회

신년 연합 조찬기도회 공고

시애틀 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최인근 목사)와 시애틀 한인목사회(회장 김철곤 목사)는 오는 2014년 1월 4일(토) 오전 8시, 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담임 최인근 목사)에서 연합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두 단체의 대표인 최인근 목사와 김철곤 목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애틀 지역 교

회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며 "모든 회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일시: 2014년 1월 4일(토) 오전 8시
장소: 14738 1st Ave. NE Shoreline, WA 98155
문의: 황준호 목사 206-579-5890
김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연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래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니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배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배 8:00 분당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예배 오전 9:3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체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침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래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앨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께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각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과 감동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래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모임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필요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명'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시판개시!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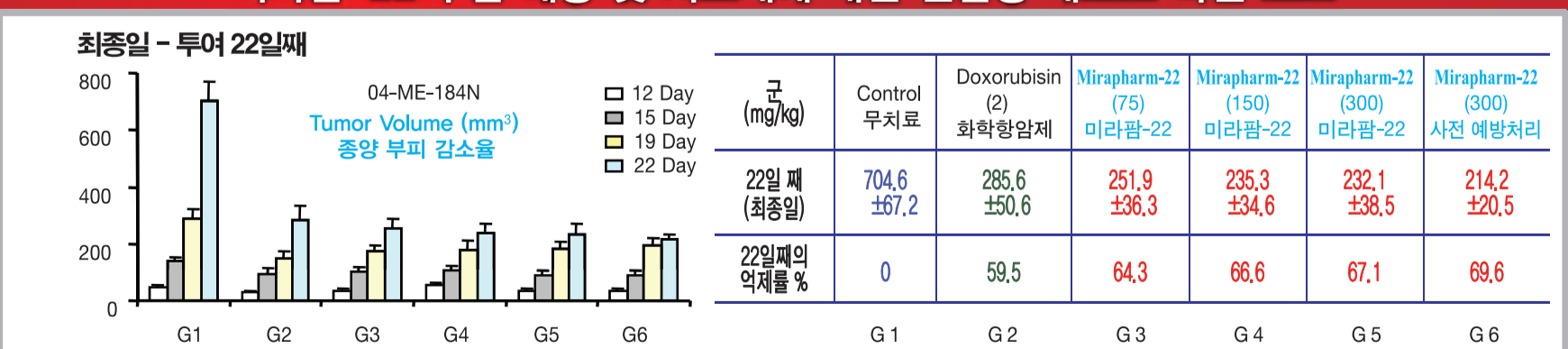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칼빈주의에서 본 바르트 신학의 功過

개혁신학회-칼바르트학회,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개혁 심포지엄

한국개혁신학회(회장 김영선 박사)와 한국칼바르트학회(회장 김명용 박사)가 21일 서울 새문안교회(담임 이수영 목사)에서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개혁'을 주제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특히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가 '바르트 신학의 공헌과 문제점-칼빈주의적 관점에서'를 제목으로 발표, 눈길을 끌었다. 김 박사는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종교개혁 전통을 불붙면서도, 정통주의가 지녔던 교리적 경직성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신정통주의'의 길을 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한국 보수 교회에서는 자유주의자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는 바르트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격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바르트의 공헌으로 "자유주의를 격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신학 혁명을 주도했다"고 평가한 김 박사는, "설교자로서 바르트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한 일반적 인간성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종교성, 문화성, 자율성으로 인해 설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독특성이 은폐된다는 것"이라며 "바르트가 성경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감춰온,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불연속성이며, 인간의 의에 대립되는 하나님의 의요, 인간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바르트는 정통주의적인 축자영감설과 19세기 자유주의 역사비판적 방법의 긍정적인 면을 모두 검토하면서 정통주의적 영감설에 관한을 더 부여한다"며 "자유주의가 영감의 도움 없이 역사적 삶의 정황 분석에 머문다면, 정통주의는 역사적 삶의 이해와 분석 없이 문자 자체의 내재적 조명에 머문다. 그러나 칼빈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영의 조명 속에서 개별적 문자를 전체적 말씀을 통해 비판적으로 음미했다고 바르트는 본다"고 설명했다.

계시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아

이어 김 박사는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그는 먼저 '역사상실'의 문제를 꼽았다. 김 박사는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에서 수행된 변증법적 신학의 역설은 모든 신학의 정언적 명제를 거부하는 회의론과 가치 부정론에 빠진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기보다 더 많이 감추어지며 더 많

이 제한된다"며 "계시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에 있어서 바르트는 계시를 체계적 사건 속에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바르트에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연대기적인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세계의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 김 박사는 "세계 속에 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미 플라톤의 이데아적 신이며 초월과 동시에 내재해서서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기독교의 인격적 신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박사는 그 유명한 브룬너(Emil Brunner)와 바르트의 '자연신학 논쟁'을 소개하며, "브룬너의 입장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브룬너는 바르트처럼 자연과 은총, 이성과 계시가 모순되거나 대립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브룬너는 자연의 질서를 은총의 질서에 종속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바르트의 비판처럼 비성경적이거나 계몽주의 신교주의적 시도가 아니라고 본다. 브룬너는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배제시키고 은총의 질서만을 고수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전통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바르트와의 논쟁 논문인 '자연과 은총'에서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바르트는 보편구원론을 주장했을까

김 박사는 '예정론'에 있어서도 칼빈과 바르트를 비교했다. 그는 "바르트는 예정론을 말하나 더 이상 이중 예정이 아닌 일원예정, 즉 은총의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예정론의 전개에서 불신자들에게 대한 전통적 유기론을 기독교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기 대상이 되도록 한다"며 "그러나 칼빈은 바르트와 달리 유기론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죄인인 개인이 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일원예정론이 아닌 기독교론적 이원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르트는 유기론을 다루기는 하나 그것을 인류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돌림으로써 죄인인 개인이 유기당하는 것을 기독교론적으로 무위화시켰다"며 "이러한 바르트의 유기론 포기는 유기론 말하고 있는 성경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써, 정통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원예정론은 종말론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만인구원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박사는 "바르트는 칼빈의 예정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보편기독교론적 일원예정론으로 수정



김영한 박사

함으로써 만인구원론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그는 교의학에서 만인구원론을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신학 구조는 필연적으로 보편구원론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바르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저술한 방대한 교의학의 체계에 있어 '신자유주의'라는 비난의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박사의 발표를 논평한 최영 박사(기장 목회학박사원)는 바르트 예정론에 대한 김 박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통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바르트의 선택 교리는 칼빈이 원래 말하고자 했지만 명확히 말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표현해 낸 것이 아닐까"라며 "칼빈은 선택과 유기를 말했지만 그에게 예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이해되고, 이 주권적 은혜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칼빈은 선택과 유기 교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목적에서만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묻지 말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고 권면한다. 게다가 그는 이 문제를 설교단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설교단에서 언급한 내용은 오로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선택뿐이었다. 그렇다면 예정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견해는 정통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바르트의 견해와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한 박사가 "바르트의 신학 구조는 필연적으로 보편구원론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바르트는 '만유화해론' 또는 '만인화해론'을 주장했지 결코 '만인구원론'이나 '보편구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와 구원은 다른 사건이다. 화해는 2천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객관적으로 일어났고, 구원은 오늘 여기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한 인간의 주관적 수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김진영 기자

[기자수첩]

창조론 믿는 당신은 과학자인가

'창조론 오픈포럼'이 지난 13일 그 13번째 모임을 가졌다. 매년 두 차례 열리니 벌써 7년째다. 신학자·과학자·의학자 등 발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진화론'에 물음을 던지고 '창조론'에 믿음을 보탠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인류의 기원을 고민하는 기독교 내 단체들은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지만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창조론 오픈포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인류를 비롯한 각종(種)의 처음(origin)을 밝히고 이를 쟁점화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그 '바깥' 만큼 뜨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교회가 지난 2009년을 그냥 흘려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는 찰스 다윈이 탄생 200주년을, 그리고 그가 쓴 '종의 기원'이 출간 150주년을 맞던 해였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교회는 조용했다.

물론 교회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기원에 대한 문제는 주장하고 선언해야 할 것일 지언정 의심의 대상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명제로 받아들이어야 할 '전제'로,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산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듯,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 역시 기독교인에게 그러하다.

그런데 만약 공기가 오염돼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그 해결책을 찾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정화하는 일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어느 시대보다 창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진화론, 즉 하나님 없이 인간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지는 듯하다. 세계적 석학이라는 이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에 대한 신념을 조롱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가 정화에 앞장서야 한다.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데도, 숨을 쉬지 못해 가슴이 답답한데도,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정화의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문제는 매우 미미했고, 효과 역시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 때로 현대의 상식 수준에선 수용될 수 없는 논리로 비아냥을 사거나, 교과서 개정 등 민감한 부분에서의 접근으로 그 전후사정 및 합리성과는 관계 없이 그저 '반기독교 정서'만 키운 꼴이 된 전례가 바로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기독교인들은 "종교와 과학은 별개"라며 아예 진화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진화론에 맞서려는 시도는 되레 역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무관심 내지 방관을 불러오는 악순환이다.

언젠가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에게 "왜 진화론을 믿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그게 더 과학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마 진화론에 선 많은 이들이 이처럼 과학적 합리성을 그 신뢰의 이유로 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이유 역시 그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 혹은 창조론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적어도 나는 과학성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내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에 창조론을 믿는다.

그렇기에 창조론이 왜 내게 더 큰 의미인지,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을 웅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큰 힘은, 내가 믿는 것을 벽처럼 밀고 함께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라고 확신하는 까닭이다.

물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변증하려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걸 들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노력은 가치가 바래고 만다. 창조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을 들이대더라도 신앙이 없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창조론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자명해 진다. 복음 전파다. 아니, 오히려 더 주력해야 하는 일이다. 창조는 믿지 못하면서 진화는 믿는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설령, 비과학적이라 생각되는 창조라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진영 기자

온 돌 마 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A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중앙아프리카, 기독교인-무슬림 ‘폭력의 악순환’

공격, 폭탄, 테러, 납치 일상화된 중동

평화 유지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 절실해

이라크 지도자 “중동 기독교인 현실에 눈 떠 달라”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 HRW)는 19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 기독교 민병대와 무슬림 간 폭력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Human Rights Watch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해, 유엔의 긴급한 행동을 요청했다.

“그들은 죽이기 위해 왔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확대되는 잔학성(They Came To Kill: Escalating Atrocitie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 지역 내의 폭력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최근 쿠데타를 지지한 이슬람 반군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고 있다고 전했다.

34쪽 분량의 보고서는 우암(Ouham) 지역과, 지난 2013년 9월 이후 발생한 민병대 세력인 안티 발라카(Anti-Balaka)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기독교 민병대가 무슬림을 살해하고 주택에 방화하며 소를 비롯한 가축들을 훔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1월 18일 보상고아(Bossangoa) 지역 부사령관인 살레 자바디(Saleh Zabadi) 대령은 그의 상관과 12명의 관리들 앞에서, 7명의 농부들을 폭력 사태에 대한 혐의로 억압시 키도록 했다. 이 농부들은 밭줄에 묶인 채 우암강에 던져졌고, 이 가운데 3명만 살아남았다. 안티 발라카 세력은 이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작위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무슬림 집단의 대규모 보복도 이어졌다. 익스셀레카(Ex-Seleka) 세력은 더 이상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많은 혼돈의 주범이 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이자 국제인권단체의 응급사태 책임자인 피터 부카에르트(Peter Bouckaert)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잔인한 죽음이 살해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인권단체는 이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해 왔으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명백히 밝히

리카공화국 내 잔인한 죽음이 살해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중앙아시아 내 평화 유지를 위한 급박한 지원이 긴장된 상황을 늦추고 주민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추가적인 대량 학살이 일어날 잠재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2014년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방기(Bangui) 내의 잔학성을 다룬 장문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세속화 되는 유대인 청년층 늘어나 “복음화 기회”

유대교 전통 약화되면서 복음 수용성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대인 청년층의 세속주의화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 왔던 종교적 제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연합단체이자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메시아니즘교인연합(UMJC)의 러스 레스닉 총무는 이달 초 미국 교계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푸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젊은 유대인들의 73%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유대인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66%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통과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다.

미국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 푸리서치센터는 최신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젊은 유대인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유대인임을 결정짓는 요소로 종교를 꼽는 경향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세속주의의 영향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시아니즘 교인 영국 윌리엄스 크리스천칼리지(ANCC)에서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는 리처드 허비 교수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대인 밀레니엄 세대에서 유대교가 종교로서 선호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밀레니엄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종교 기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레스닉 총무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줄어드는 종교의 영향력은 문제인 동시에 기회다”고 말했다.

허비 교수 역시 이러한 세속주의화가 기독교 선교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이스라엘)가 계속해서 세속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도, “그러나 그 결과로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

목적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비 교수는 그러므로 “메시아니즘들은 ‘종교’가 아닌 정체성과 목적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더 분명하고 오늘날 삶에 적용 가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UMJC 커크 글레베 회장 또한 유대인 청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독교 언어의 현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북미에서 사용되는 기독교 언어들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적 문제를 더욱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유대인은 물론 세속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조차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분”이시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지나친 종교적 경직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손현정 기자

이라크 기독교 지도자가 서구를 포함한 자유세계에 중동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루이스 라파엘 1세 사코 바그다드 대주교는 최근 로마에서 열린 ‘기독교와 자유: 역사적 현대적 관점(Christianity and Freedom: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컨퍼런스에서 중동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목숨을 건 탈출(mortal exodus)”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그는 자유세계가 할 수 있는 일로 첫째는 “이슬람의 종교자유 관련 관점과 정책을 현대화하도록 돕는 것”과, 둘째는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체 사회에 해를 입히는 일임을 알게 하는 것”을 들었다.

대주교는 이 날 회의에서 이라크와 타 중동 국가들의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도 나눴다. 그는 “이라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 폭탄 테러, 납치, 살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이래로 이라크에서는 1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됐고, 62곳의 교회와 수도원들이 공격을 받았다. 또 10년여 동안 이라크를 떠난 기독교인의 수는 85만여 명에 달해, 1987년 120만 명에 달하던 이라크 기독교 인구가 현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주교는 이러한 상황이 이웃 국가들인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이집트에서는 100곳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고, 시리아에서는 67곳의 교회가 피해를 입고 4만5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라 밖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자유세계는 중동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공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종교적 극단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매우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교적 폭력 역시 증가일로에 있다”며 “이는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들과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중동 사회의 기본 구조가 이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교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무정부 상황에 가까운 현재의 정국을 이용해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장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세계에 다시 한 번 “이라크와 중동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떠 달라”고 당부했다.

대주교는 “기독교인이 없는 중동은 문화와 사회의 기반이 바뀌게 될 것이고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아랍 세계의 중요한 일부인 기독교인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현정 기자

‘시한부 종말론’ 주장했던 해롤드 캠핑 사망

지난 2011년 5월 21일 예수가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던 해롤드 캠핑(Harold Camping)이, 12월 15일 사망했다. 이 소식은 그가 운영하던 패밀리 라디오(Family Radio) 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졌다. 2011년부터 건강이 악화돼 왔던 그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미끄러졌다.

1950년 사역을 시작할 당시, 캠핑은 전 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패밀리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관점들을 알려 왔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오픈 포럼’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1주일에 5번 강연을 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중국과 가나 등 해외 청취자들도 전화로 참여할 수 있었다. 캠핑은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오픈 포럼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 전화를 받아볼까요?”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캠핑은 1994년부터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으나, 그의 가장 최근 예언은 그가 설립한 패밀리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지구의 종말이 2011년 5월 11일이 시작되어 2011년 10월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핑은 성경에 대한 박식함과 라디오 네트워크로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잘못된 교리가 포함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지자들을 많이 잃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교회에 참여하지 말라거나, 현 교회는 이단적이며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언은 맞지 않았고, 그는 2012년 3월 자신의 과거 예언이 부정확했고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예언 사역을 접었다. 그는 방송국을 팔고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2007년 1억3500만 달러에 달하던 그의 자산은 2011년 2920만 달러로 줄었다.

강혜진 기자

추석 성탄

성경적 의료비 나눔 사역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크리스찬을 위한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1996년부터 성도들의 의료비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비영리기관 501(c)(3)에 등록된 로스앤젤레스 산하의 기관으로, 오바마 케어 벌금대상에서 면제되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이며, 저희를 통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의 특징

- ▶ 의사나 병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합니다.
- ▶ 기도와 물질로 의료비의 무거운 짐을 나눕니다.
- ▶ 한국, 세계 각국과 선교지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됩니다.
- ▶ 2002년 이후, 한번도 회비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 ▶ 한국어로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2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TEL, 888-777-8226 WEBSITE, www.christianmutual.org

- 남 부 469-897-0863 texaskorea@gmail.com
- 동 부 917-500-1330 hwajowi@christianmutual.org
- 동남부 404-399-8494 wanago@hotmail.com

- 북가주 650-515-2727 so.insook@gmail.com
- 북서부 425-741-3600 johnkwon@seattlebesti.com
- 서 부 213-700-9212 otisee@christianmutual.org

<서승원 특별 기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10)

3. Hellenism과 Judaism이란 말의 유래와 뜻

- 1) Hellenism
- 2) Judaism

유다이즘이란 말도 누구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흔히 에스라에 의해서 대표되고 탈무드에 의해서 완성된 유대인들의 종교를 지칭하거나 또는 종교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플라신학교의 해그너(Hagner)교수는 I. H. Marshall, A. R. Millard, J. I. Packer, 그리고 D. J. Wiseman이 편집한 New Bible Dictionary에 실린 "Judaism"이란 글에서 유다이즘을 "유대인들의 종교 즉 그들의 신앙과 실천"이라고 정의했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Gordon College의 윌슨(M. Wilson) 교수는 엘웰(W. A. Elwell)이 편집한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에서 유다이즘을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나와 너(Ich und Du)"라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그의 "유다이즘에 관하여(On Judaism)"란 책에서 유다이즘을 "종교적 실체의 현상(phenomenon

of religious reality)"이라고 정의했는데, 그에 의하면 "종교적인 실체란 문화와 그 여러 국면들에 의해서 그 형태가 결정되는 종교에 있어서의 변하지 않는 핵심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유다이즘에 대한 정의 역시 뚜렷하지는 않지만 종교가 유다이즘의 핵심이라는 생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영국학자 데 랑주(De Lange)는 이와는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는 그의 책 유다이즘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유대인들은 유다이즘을 그들의 종교라기보다는 그들의 생활양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종교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신앙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히브리어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으며, 현대에 이르러 종교라는 말로 사용되는 "다트"라는 말은 원래 신앙의 영역이라기보다 법의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의 특수성(Jewish identity)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종교적 신앙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한 성분(ingredient)일 뿐이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분이 아닐 수 있다.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충실한 유대인이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유대인이 많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유대인의 특수성에 대한 우선적 요소는 출생에 의해서건 또는 선택에 의해서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건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과 활동 그리고 이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역사를 떠나서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1937년에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랍비들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의 선언서(Declaration of Principles)가 채택되었다.

"유다이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종교체험이다(Judaism is the historic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Jewish people)."

차라리 "유다이즘이란 종교적인 체험을 축으로 한 유대인들의 사상과 문화이다"라고 정의했다면 더욱 좋을 뻔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 체험인가?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토라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랑주의 책 2면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언급하고 있는 체험이 모세 5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체험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유다이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동일한 학자라도 그가 쓴 책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예를 들면 유대인 학자로서 현재 미국학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유다이즘에 관련된 책들을 가장 많이 저술한 학자들 중의 하나인 뉴스너(Jacob Neusner)는 그의 "기독교 초기의 유대교"라는 책에서 유다이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대교란 현실에 대한 유대적 해석에 따른 신념, 교리, 실천, 경건의 제 형태와 행위, 도덕적 그리고 지적 활동의 총체이다(Judaism: the whole body of belief, doctrine, practice, patterns of piety and behavior, and moral and intellectual commitments that constitute the Judaic version of reality).

그런데 뉴스너는 "현실에 대한 유대적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처럼 정의가 또 다른 정의를 필요로 한다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의 책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의 유대교"라는 책에서는 유대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의한 유배, 구속, 노예와 해방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종교이다.
그는 바로 그 앞 페이지에서 "유대

교는 종교이다. 종교는 그밖에 무엇이건 간에 하나의 이야기이다"라고 적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종교가 실제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생활과 분리된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책보다 앞서 출판된 "유다이즘 소사"에서 내린 유다이즘에 대한 정의에서는 현실생활을 언급하였다:

유다이즘이란 세 가지 구성요소들로 되어 있다: (1)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토라 특히 모세 5경과 그 밖의 예언서들을 정경으로 간주한다. (2) 그것은 모든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토라를 고수해 온 자들이 그 연장된 가족 즉 5경이 말하는 거룩한 백성의 일부를 형성한다. (3) 그것은 이스라엘이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한다. 이 세 요소들은 유다이즘의 세계관, 사회적 단일성, 그리고 삶을 정의한다. 세계관은 토라가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는가에 의해서 정의되며 유다이즘의 사회적 집단은 -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바 - 이스라엘 즉 그 거룩한 백성을 포함하고, 그 삶의 방식은 토라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 역시 유다이즘의 구성요소이지 그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요약하자면 "유다이즘은 유대인의 종교를 지칭하고, 그 종교는 토라와 예언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토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까지도 규정한다"가 될 것이다.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27)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27회)

Does she want to buy her white shirt?
그녀는 흰 셔츠를 사기 원하나요?
Yes, she likes a white shirt.
네, 그녀는 흰 셔츠를 좋아합니다.
Does he want to buy new pants?
그는 새 바지를 사기 원하나요?
No, he doesn't have money now.
아니요, 그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Do they want to go to the beach?
그들은 바닷가를 가기 좋아하나요?
Yes, they like the Seal Beach.
네, 그들은 썰 바지를 좋아합니다.
Does Mary want to sell her old books?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메리는 그녀의 낡은 책을 팔기 원하나요?
Yes, she needs money.
네, 그녀는 돈이 필요합니다.
Do you want a soda?
당신은 소다수를 원하시나요?

Yes, I am thirsty.
네, 나는 목이 마릅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27회)

Jesus replied, "I tell you for certain that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before you can see God's kingdom!"
Nicodemus asked, "How can a grown man ever be born a second time?"
Jesus answered, "I tell you for certain that before you can get into God's kingdom, you must be born not only by water, but by the Holy Spirit."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였다. "어떻게 어른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27회)

The emphasis of holy living as practical Christian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ministry of spiritual leadership. Our teaching of all subjects must be related

to perfect truth of God. Students must see the unity of natural and special revelation when they learn. All outward ceremonies without inward truth are only an abomination to God. - Comenius

실제적 기독교로서 거룩한 삶에 관한 강조는 영적 리더십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사안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는 이들은 그들이 공부할 때에 반드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단일성을 깨달아야 한다. 내적인 진리없는 모든 외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에 불과하다. - 코메니우스 어록 중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복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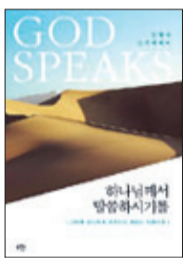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형규 | 샘솟는기쁨 | 392쪽

서른 넷에 고신대 교수로 시작하여 일흔인 지금까지 세 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선교사인 저자의 27가지 선교 에세이와 논문을 모았다. 문장이 일상의 호흡처럼 쉽고 자연스러우며 때로는 아름다운 서사시 같으나, 교회와 성도를 위한 묵회서신이자 선교지침서이다.



갈라디아서를 읽읍시다

오석호 | 쿰란 | 470쪽

호남신대 교수와 광주서석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의 갈라디아서 강해집.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 변질에 대해, 저자는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으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도서 강해

오스왈드 챔버스 | 토기장이 | 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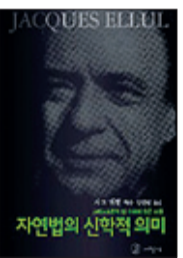
저자가 1917년 10월, 1차 세계대전 당시 군목으로 섬기던 이집트 자이툰 막사에 모인 장병들에게 전한 메시지이다. 갑작스레 전장에서 병을 얻은 그가 전장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병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로, 챔버스 영성의 완결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

자크 엘룰 | 대장간 | 206쪽

정의의 표현으로써의 법은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 법의 적용, 즉 재판은 무엇보다 '공률'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법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REVIEW

교회 안에 자리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기독교 고전 순례 9]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국에서 태어난 제임스 패커(1926-)는 성공회 성직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다. 그는 회심 후 얼마 안 돼 우연히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책을 접했고, 이를 계기로 16-17세기 청교도들의 작품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가 쓴 옥스퍼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도 청교도 지도자인 리처드 벅스터의 사상에 관한 것이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에서 27년 동안 교수 및 설교 사역을 했다. '크리스체너티티데이' 수석 편집자로 섬기며, 다양한 신학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다.

저자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사태는 두 가지 불행한 경향에서 비롯된 듯하다.

첫째는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

더라도, 그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긴다. 기이한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현대의 풍조에 항복해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정말로 자살행위와 같다.

둘째는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신학과 철학은 과학과 현대 결합하여 과학의 주장을 따라왔다. 그 결과 '성경'은 과학의 관점에서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됐으며, 사람들은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사실들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직접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열정은 무엇보다 기도로 표현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분명한 표시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미리 아시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예정하심이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인간의 운명에 대해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 IVP | 504쪽

세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준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승리한다. 가져올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인간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네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사로잡힌, 이들이 지니고 있는 평화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찰스 콜슨도 "기독교 클래식"이라 불릴 만한 책은 많지 않지만, 이 책은 단연코 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이 책은 1973년 초판이 나온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애독한 '현대의 고전'으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송광택 목사(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빠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몽골 현지인교회 및 대학사역 하는 박인옥, 이현주 선교사 부부

급속히 세속화되는 칭기즈 칸의 후예들 “청년이 희망이다”



이현주, 박인옥 선교사 부부

박인옥, 이현주 몽골선교사가 안식월 차 애플샌드위치 찾았다. 이현주 선교사는 세계로교회 이재위 담임 전도사의 누나이기도 하다.

2000년 1월 파송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교회 개척사역, 타문화권 선교, 대학교수 사역 등을 하고 있는 박인옥 선교사 부부는 대륙에서 부는 몽골의 매서운 바람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몽골의 부흥이 거의 준비됐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현지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준비된 두 선교사를 만나 몽골의 영적, 사회적 현황, 청년사역의 비전 등을 나눴다.

칭기즈 칸의 후예들 냉철한 가슴으로 '빵보다는 복음'

'몽골'하면 한때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평정했던 몽골제국의 창립자인 '칭기즈 칸'이 오버랩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막대하다. 몽골인들의 기질은 여전히 '칭기즈 칸'과 닮아 있는데,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회만 되면 관계의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000년대 초반, 선교사의 비전을 받고 처음으로 밝은 몽골땅에서 뜨거운 마음이 앞서 힘겨운 삶을 사는 현지인들의 생활을 돕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마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만 세워나가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이다.

박인옥 선교사는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신뢰관계 형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몰심양면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 역시 동일한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등 돌리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었던 선교사 편에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옹호하더라고요. 믿음과 사랑, 열정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반응들이 차가워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몽골인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마음은 최대한 '냉철'하게 갖고,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지인 교회로 잘 세워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선교사 역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마음이 뜨겁다 보니 현지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고 퍼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선교사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해주다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복음이나 빵이나'를 놓고 고민하게 됐고, 먼저는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더 굳게 붙잡게 됐

어요"라고 덧붙였다.
개방 이후 급속히 세속화되는 몽골 청년들이 희망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벗어나면 여전히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이 많아, 대부분의 선교사역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울란바토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곳에 세워진 후레정보통신대학교(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서 기술한국어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 목사는 "한류(韓流) 열풍과 더불어 출세의 방법으로 한국어 배우기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특화된 기술 한국어를 심도 깊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후레대학이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교내 기독교아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전도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예배 모임을 갖고 있기도 하죠. 개방 이후 태어난 지금의 청년들이 몽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개방 이후 몽골은 급격한 세속화 및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박 선교사 부부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해도 10년 사이에 족히 200-300%의 인플레이션이다. 2000년 당시 현지인 월급은 한국돈으로 3-5만원 가량, 많어도 1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0만원이 보통이고 많이 받으면 몇

백만원도 받는다고 한다. 개방 초창기만 해도 비슷한 경제수준이던 몽골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가속화되고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여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극빈' 상태를 벗어났지만,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돈을 우선시하고 돈을 좇아 사는, 돈이 '왕 노릇'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인 열방복음교회(다야르세르겔트교회)는 현지인 목사와 함께 자립운영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개척한 부흥의물결교회(세르겔팅다알가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단 철수하게 된 것도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선교사들의 고민이 큼니다. 울란바토르에 약 70-80가정의 한인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 모임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GDP가 7천불이 넘어가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시기라고 하는데, 현재 몽골은 3천5백불에서 4천불 수준입니다. 향후 5-10년 안에 경제 부흥과 함께 복음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척 등 프론티어 사역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의 조급함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박 선교사는 이를 위해 몽골 현지인 목회자들과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얼마 전 몽골 복음주의협의회에서 '2010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고 설명했다.

2010 프로젝트 위해 현지 목회자들과 협력

'2010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10퍼센트의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으로, 현재 몽골의 복음화율은 3-5퍼센트다. 몽골의 전통종교는 85% 이상을 차지하는 티벳불교로 국교는 아니

만 오랜 역사 가운데 삶으로 스며들어 있으며, 그 다음은 무속종교가 차지한다. 반면 기독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로 여겨 국민 정서나 정치적으로 배타적이다. 국가적으로 불교와 무속종교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한 가정 한 무당 만들기 정책을 펼칠 정도다.

하지만 박인옥 선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하나님께서 몽골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몽골 전체의 선교역사로 볼 때 지금은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시기죠. 곧 하나님께서 몽골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 사역을 통해 한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청년들을 복음으로 훈련하고 기독교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로 세우고자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선교사는 몽골에는 여성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 뒤 "얼마 전 서울 광나루 장신대학원에 입학하기를 받았다. 다시 공부에 도전하게 된 것은 몽골에 있는 여성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더욱 깊이 섬기고 동역하고자 하는 비전 때문이다. 앞으로 내 교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싶다"고 비전을 나눴다.

선교사역 후반기에는 후레대학을 통해 건강한 청년 기독교인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박인옥, 이현주 선교사 부부는 "몽골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 중에 대학은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개방 이후에 태어나 사회의 교육을 받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젊은이들이 사회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로 세워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양육하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문의) 미국: 213-925-4131, 몽골: 976-9119-1114, 976-8813-2114, 070-7570-3577, 이메일: piw63@hanmail.net, piw63@yahoo.com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 >>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 >> 요실금 증후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 >> 골반 틀어짐 분 허리 굽은신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 >>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따뜻한 겨울, 건강을 주는 살아 숨쉬는 품의 섬유 KSB 헬시케트

KSB 헬시케트는 일본 '데이진'사의 '데비론' 프랑스 '로빌'사의 '로비롱'의 장점을 담은 양털보다 2배의 보온성, 습도가 전혀 없어 항상 보송보송하고, 모든 건강 제품에서 말하는 음이온이 평생 만들어지는 38년 동안 변하지 않고 판매되어온 **'음이온 원조 건강이불'**입니다.

- * 말과 소가 덮어도 체험이 나오는 음이온 건강이불.
- * 누구나 그냥 덮고 주무시기만 하면 건강해 집니다.
- * 혈액정화, 세포활성, 면역력 증가, 자율신경 조정, 활성산소 제거, 통증완화, 냄새 제거 등.

수족냉증, 저리고 쥐는 증상, 관절염, 아토피, 천식, 암, 루포스, 대상포진, 암, 신경통, 중풍, 심장마비, 우울증, 불면증, 위산과다, 요실금, 생리통, 심장병, 신부전증, 당뇨, 수족냉증, 현대병, 공해병 등 공기 좋은 산속에서 6개월이면 아토피도 없어집니다. KSB 헬시케트는 산속보다 더 많은 음이온을 발생합니다.

광고지침 방문하신 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열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A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크리스마스, 어린이들에게 사랑 전해



이날 CII는 어린이들에게 6000여 개의 장난감을 전달했다.

CII와 40여 후원 단체들 힘모아 페스티벌

남가주 커뮤니티에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Children's Institute Inc.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지난 14일과 15일 홀리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저소득층 영유아 데이케어 서비스 뿐 아니라 폭력과 학대 당하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 등 폭넓게 일하고 있는 CII는 매년 이맘 때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연다.

CII의 오랜 후원자인 장난감 회사 마텔이 올해도 6000개의 장난감을 기부했고 이 행사에 참여한 수백명의 가정에 전달됐다. LA포토포티는 가족 사진을 찍어 줬고, 엘포으로 쪼는 맛있는 음식을 기부했다. 이 외

에도 LA카운티세리프극, 캘리포니아 피자치킨, 게이코보험 등 40여 단체가 힘을 모아 갖가지 공연과 행사로 섬겼다.

이 행사는 토렌스와 LA다운타운에서 열렸으며 CII가 섬기는 600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수천여명 참석했다.

현재 CII는 0세에서 3세까지의 신생아 및 유아, 그리고 임신부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 발달을 돕는 엘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6주에서 5살 미만의 아동들을 돌봐주는 무료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213) 385-5100로 하면 된다. 엘리 헤드 스타트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있는 어린이.

는 Ext 1840, 무료 차일드케어는 Ext 1838이다. 김나래 기자

베데스다대 총동문회 성탄절의 의미 콘서트로 되새겨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주최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8일 저녁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음악과 재학생들의 합창 모습.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주최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8일(수) 저녁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1부 순서는 클래식 뮤직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연주가 있었고, 2부는 가스펠 찬양(CCM)을 주제로 키보드, 보컬, 바이올린, 색소폰, 합창 등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학교 음악과 교수들, 재학생들, 동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콘서트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제의 장을 펼쳤다.

콘서트를 주최한 총동문회 회장 최명상 목사는 "음악과 주관으로 동문들과 행사를 준비하면서

수고가 많았다. 여러 동문들과 교수들, 재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실력이 향상된 모습이 아름다웠다"며 "장소를 제공한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및 모든 성도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공과목은 피아노, 오르간, 반주, 성악, 작곡, 지휘, 관현악, 찬양사역, 실용음악, 음악치료, 뮤지컬, 컴퓨터음악, 영화음악 등이 있다. 음악과 신입생 모집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알짜 영어교육 무료로, 각종 직업 교육도 함께



ORT가 다양한 직업 교육 과정을 열고 한인들을 초대하고 있다.

8개월 동안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어를 완벽하게 배우는 데다 다양한 직업 교육도 알차게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이곳은 LA ORT 칼리지(이하 ORT)다. 이민자 교육기관 중 단연 돋보이

는 학교다.

지난 1880년에 설립돼 무려 1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유대계 이민자들에 의해 출범해 LA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했고 세계 60여 개국에 9백여 학교를 두고 있다. 남가주에는 월셔길의 엘에이 메인 캠퍼스와 벨리 등 두 곳에서 운

영 중이다. ORT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 교육이다.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영주권자 이상의 저소득층은 16개월 코스의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비와 교재비도 모두 무료다.

ORT는 영어 외에도 다채로운 직업 교육 강좌를 운영 중이다. 어카운팅(AAS DEGREE),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메디컬 어시스턴트, 약사 어시스턴트, 디지털 미디어(AAS DEGREE), 일반 사무직,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건축설계(CADD) 등 여러 가지 훈련 코스도 있다.

한인들은 한인담당자인 그레이스 이 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20도 발행하고 있고 전학하는 학생도 받고 있다. 문의) 사무실: 213-703-6863, 그레이스 이: 323-966-5444

"사랑의 점심식사" 독거노인 섬겨



방주교회가 개최하는 "사랑의 점심식사"가 독거노인과 이웃 300여 명을 섬겼다. 이날 행사 후에는 각종 선물도 증정됐다.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개최하고 있는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이 12일(목) 정오에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인 독거노인 및 이웃 300명이 모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DS카드결

제서비스(법인장 김용대)에서 1200불을 후원한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봉사를 펼쳤다. 또한 한미은행 네이버 자원봉사팀도 함께 봉사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화원에서 제공한 떡국 떡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농협 홍삼 한삼인

고객 감사 세일

2병(100g*2) 구매시 + 1병(100g) 증정

1병(240g) 구매시 + (100%홍삼즙)활력액 1box(30포-1달치) 증정

판매순위 1위인 홍삼 100% 순액. 72시간 이상 저온 추출시스템으로 항당뇨작용, 체력증진, 위장기능강화. 항암작용에도 강력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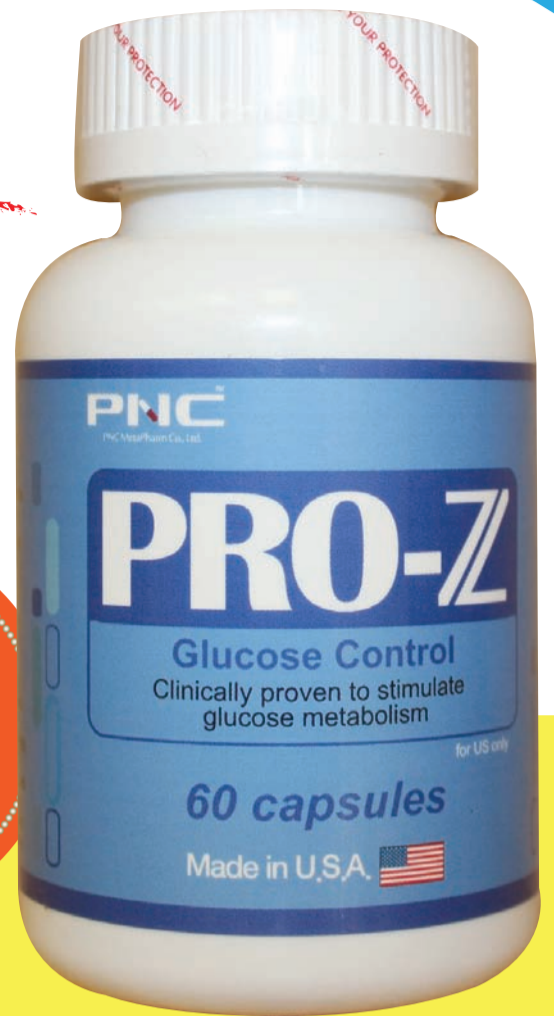
LA 지역: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 323.737.8888 (올림픽+하바드 - 서독안경빌딩)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플러턴지역: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53.6624 (아리랑마켓입구)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걸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장 OO 목사(당뇨 4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90005

프로지 셀러(seller) 모집중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